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영농철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위해 ‘현장 점검 총력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 입력 : 2026년 07월 14일(화) 14:43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지사장 이재경)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역 농민들이 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확보 및 시설물 안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령지사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벼 생육기 등 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관내 주요 수리시설과 임시 양수 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동 중인 양수장 시설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특히 농경지 인근 수로의 유량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용수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임시 호스와 펌프 등 양수 장비의 유기적인 연결 및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공사는 현장 점검 시 직원들의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안전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용수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재경 의령지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이 용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과 집중호우 등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 영농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url : http://www.ur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34&dx=104188

Copyrights ©의령신문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